

2017년 5월 27일, 구좌읍 평대리 평대리노인회관, 이현정 조사.

오원규(남, 1900년생, 구좌읍 평대리)

- 줄거리: 옛날은 먼 거리를 혼자 다니기 적적하여 개를 한 마리씩 길러 데리고 다녔다. 한 사람이 개와 함께 동행하다가 날이 저물어 어떤 지경에 도착하자 개가 주인의 옷을 물며 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곳에 구멍이 있어 개가 그곳에 빠져버렸다. 그곳이 구멍이 만장굴의 입구와도 같은 곳인데 후에 개가 그 구멍을 통하여 만장굴로 나왔다고 전하여 온다.

[제보자] 옛날은 개를 길وا가지고 이제 사냥, 저, 산에 가믄 여기 제주돗 말론 드르에 가믄 꿩도 잇곡, 노루도 잇곡, 지달이도 잇곡. 게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 이 물을 질루는 사람 게 방목해서 길루니까. 혼자 뎅기기는 뭐냐 허게 웨믄 저, 뭣고 고단 허니까 개를 헉나씩 질루는 거라. 질뭐가지고 갈 때는 둘양 나가는디.

그것이 제주도 어디엔 햇더라. 그 저 가다보니깐 날이 저물어가지고. 이제, 못 가게 웨니까, 아, 못 가게 됤게 아니고 가는데, 개가 뒤로 주인 옷을 물어가지고 다리에 옷을 물어가지고 못 가게 땅기는 거라.

‘희한하다.’고 헛어. 그디 앗아가지고 고만히 앗아서 이제 뭐냐 허게 웨믄, 허룻밤을 세왓는디. 개는 그리 빠져 비었다 이거야. 거기가 굴이라. 글로 해서 그, 만장굴론가 어디로 나왔다 이거야.

- 핵심어 : 개, 주인, 옷, 다리, 굴, 만장굴, 동물보은담